

말기 암 환자의 암성 통증 표현양상

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¹,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², 가톨릭대학교 의학통계학³

박명희¹ · 백선희¹ · 김남초² · 송혜향³

본 연구는 말기 암 환자의 우리말 통증표현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암성 통증에 대한 정확한 간호사정의 자료를 제공하고 간호사·환자 및 의료진간의 의사소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.

연구 대상자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3월 사이에 C대학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로 입원시 통증을 호소했던 167명이었다. 자료수집에 이용된 도구는 문헌고찰을 토대로 수정·보완하여 제작한 「Pain Assessment Sheet」를 사용하였다.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.

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- 1)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통증에 대한 초기의 통증 사정시 기술된 통증표현은 총 77개였다.
- 2) 전문평가단의 내용타당도 검정을 통하여 63개의 암성 통증표현이 추출되었고, 이를 속성에 따라 12개 군 즉, 찌르는 듯한 아픔, 압박하는/부서지는 듯한 아픔, 도려내는/찢어지는/긁어지는 듯한 아픔, 저리는 아픔, 은근한 아픔, 쓰리는 듯한 아픔, 막힌 듯한 아픔, 꼬이는 듯한 아픔, 부푸는 듯한 아픔, 무더지는/둔한

듯한 아픔, 이급후중(뒤가 무지근한 것 같은 아픔), 뜨거운 듯한 아픔으로 분류되었다.

3) 진단명에 따른 통증부위는 호흡기계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진단명 분류에서 종양의 원발병소에 관계없이 복부 통증이 가장 많아 전체 통증부위 중 39.2%를 차지하였고, 이어서 사지 19.2%, 어깨와 등 16.9% 순이었다.

4) 통증부위에 따른 통증표현양상은 대부분의 부위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이 가장 많았다.

5) 통증형태에 따른 통증표현양상은 체성 통증과 내장성 통증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과 압박하는/부서지는 듯한 아픔이 주로 많았고, 신경병성 통증에서는 저리는 아픔이 가장 많았다.

본 연구결과 말기 암 환자가 호소하는 암성 통증표현양상은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우리의 문화적 맥락 안에서 정확한 의미전달이 이루어지게 되어 말기 암 환자의 통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임상에서 통증에 대한 정확한 간호사정의 틀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.